
전자공학과 학부생 연구(UR) 해외연수 결과보고서(2조)

- ▶ 기간: 2016.01.03.(일).~01.13(수)
- ▶ 장소: 미국

조	학 번	이 름
2	201120688	정지나
	201020059	김태희
	201120663	이원재
	201120706	이희성
	201120787	곽민규

1. 샌프란시스코 📍 1.3(일)~1.5(화)

연수 내용 : 현지 1.3(일)

현지 시각 11:00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친 뒤, 현지 가이드 분과 간단한 미팅을 한 후 점심식사를 하였다. 도축장이 가까운 곳에서만 점포를 허가한다는 서부의 유명한 버거 체인인 'IN&OUT'에서 간단히 중식을 해결하였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돌며 금문교, 유니온스퀘어, 차이나 타운등을 확인하며 인프라 시찰을 하였다. 샌프란시스코의 건축양식은 이전에 있던 큰 지진을 대비하기 위하여 고려된 것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특별히 원목과 화이트, 파스텔 톤으로 통일된 예쁜 도시 경관을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특별히 시에서 지정한 6가지의 색깔 중 1개를 택하여 건물의 외관 색을 칠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었다. 특별히 피셔맨스워프(Fisherman's Wharf)에 도착하여, 현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카니발 분위기의 39번 부두(Pier 39)에서 한가로이 앉아 쉬는 물개들을 금방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아름다운 바다풍경과 동시에 여러 거리의 악사들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베이 크루즈를 탑승하여 금문교를 보다 가까이 확인할 수 있었다. 베이 크루즈를 탑승하고, 한국어 채널을 통하여 설명을 상세히 들었기에 금문교가 왜 1996년 현대 토목건축물의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며, 주변의 건축물인 알카트라즈 감옥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매일 오후 네 다섯시만 되면 자욱하게 깔리는 안개와 수면 아래 복잡한 지형, 직접 베이크루즈를 탑승해서도 느낀 거센 조류 등의 이유로 건설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금문교이다. 그러나 건축공학자 조셉 스트라우스 특유의 탄탄한 설계와 안전한 시공으로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강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자랑이 되었다. 비록 전자공학도인 우리와의 분야는 다르지만, 여러 반대 의견에도 철저한 검증을 통한 긍정적 설득, 자신의 설계에 대한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다리 건설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후, 금문교를 실제로 건너보고 좋은 뷰 포인트에서 다시 한 번 금문교와, 샌프란시스코의 전경, 이틀 뒤 방문할 소살리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지에서의 첫 날이기에 시차적응이 필요하고, 피곤한 터였다. 간단한 저녁식사를 가진 뒤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호텔에 투숙하여 짐을 풀고, 유니온스퀘어를 간단히 구경한 뒤 첫째 날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연수 내용 : 현지 1.4(월)

조식을 먹고, 호텔에서 체크 아웃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부의 버클리라는 도시에 있는 UC Berkeley 캠퍼스 투어를 하였다. UC Berkeley는 UCLA, UC Irvine과 같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UC 계열의 학교로 미 서부의 명문대학교로 알려져 있다. 학기가 한창 시작하는 1월이었지만 우리가 방문한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다. 이곳저곳 사진을 찍으면서 구경하는데, 건물 이름에 사람의 이름이 붙은 것들이 몇 개가 눈에 띄었다. 교수님께서서는 미국 대학교는 기부문화가 잘 정착되어있어서 기부자들의 이름을 딴 건물들이 많이 보일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나라에도 기부자의 이름을 딴 장학금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UC Berkeley 탐방 이후, 실리콘밸리로 이동하였다. 먼저 동문 선배님께서 재직중인 Apple사에 방문하였다. 애플사는 1976년 4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로널드 웨인이 공동창업한 기업으로, 개인용 컴퓨터인 매킨토시 시리즈,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등의 라인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업이다. 선배님과, 애플사에서 재직 중이신 한국직원분의 도움으로 건물 안 1층에서 애플사를 구경하며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애플사의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세계적인 기업인만큼 식당도 여러 나라의 음식을 한 번에 맛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되지 않은 I store에서 애플사의 여러 기기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이후 호텔에 체크인하여 짐을 풀고, 다른 두 분의 선배님이 재직중이신 Intel 본사에 방문하였다. Guest 카드를 받아 입장하였으며, Intel의 카페테리아 및 1층의 내부를 살펴보며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1층에는 Intel의 관련 물품을 파는 샵과, Intel museum이 존재하였다. 외국인 직원으로부터 Intel의 CPU의 역사와, Wafer와 실리콘 기반의 FET 공정 순서, Fab의 내부와 Fab에서의 복장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투어를 마친 뒤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본사로 이동하여 선배님들과의 뜻깊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Kotra의 과장님께서 K-move 프로그램과 해외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해 주셨다. 또한 선배님들께서 직접 준비해주신 PT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IT market & memory' '미국기업 취업과 삶', '100대 기업이 말하는 인재상' 등에 대한 폭넓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계속된 질의 응답시간과 뒷풀이 시간에서도 심도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까우며 가끔은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귀중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셔서 매우 감사했다. 3-4학년으로 좀 더 고민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에 필요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다. 이후 숙소로 돌아와 다음날의 반일 자유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연수 내용 : 현지 1.5(화)

아침에 체크아웃 후, 샌프란시스코의 해변가 부촌 마을인 '소살리토'에 방문하였다. 한적하며 집들의 구성이 동화같이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선착장에는 크고 작은 수백대의 요트가 정박해 있어 이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였다. 마을과 바다를 구경하며 드립커피를 마시기도 하였다. 바닷에 인접한 도로를 따라 수공예품상점에 들어가 소소한 공예품과 기념품을 구경하고, 구입하기도 하였다. 개인 작품과 미술품등을 전시한 곳도 있어서 구경하였다. Yelp앱을 이용하여 평점이 좋았던 바닷가가 보이는 식당에서 해산물 요리를 주문하여 점심시간을 가졌다. 이 후 자유시간도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며 간단한 산책을 하였고, 버스에 탑승하여 라스베가스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중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남부에 있는 도시이며, 캘리포니아 중앙분지 남부의 최대 중심지 '프레즈노'를 경유하였다. 이 도시의 이름은 에스파냐 어로 물푸레나무라는 뜻인데 이곳은 미 서부 농업의 중심지라고 한다. 그래서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피스타치오, 아몬드, 오렌지, 포도등의 여러 농작물을 수확하는 대농장을 볼 수 있었고, 넓은 초원에 방목되어 풀을 뜯고 있는 블랙 앵거스도 볼 수 있었다. 이동 중 저녁은 차이니즈뷔페에서 먹었으며, 이후 호텔에 체크인하였다. 전날에는 11시쯤에야 숙소에 들어왔다면 3일차는 약간의 자유일정 및 휴식과 이동일이 있는 요일로, 일찍 숙소에 들어와 쉴 수 있었다. 당장 다음 일자에 CES 배지를 배부받고 CES를 구경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계획을 다듬어 보고 짐을 정리하는 등의 저녁 자유시간을 아주 약간 사용할 수 있었다.



2. LA 📍 1.10(일)~1.11(화)

1월 10일 일요일, 아침 조식 후 하라스 호텔에서 체크 아웃, 약 4일 간의 라스베가스 일정을 마치고 이번 연수의 마지막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하였다. 로스앤젤레스는 현재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코리아타운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로스앤젤레스는 뉴욕시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세계 10대 경제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광역시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일 년 내내 햇살이 쏟아지는 화사한 도시이며, 다양한 피부색과 라이프스타일이 자유롭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의 이름 그대로 천사의 도시 'City of Angel'라는 애칭을 지니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아래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바다 주의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여 약 4시간 반 정도 달려 도착할 수 있었다. LA에 도착하여 Hometown 뷔페에 들러 점심을 먹은 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로 향하였다. USC는 1880년에 창립된 로스앤젤레스의 명문 사립대학교이다. 스타워즈 시리즈로 유명한 조지 루커스 감독이 이 학교 출신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최초로 달에 착륙한 미국인 닐 암스트롱 등이 USC 출신이다. UCLA와 함께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대학이며, 두 대학 간의 미식축구 경기가 아주 흥미롭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인 학생이 많이 재학 중인 학교이기도 했다. USC에 도착하여 캠퍼스를 둘러보았는데, 매우 멋있고 웅장한 건물들로 학교가 구성되어 있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고 명문학교답게 많은 관광객들도 볼 수 있었다. 캠퍼스를 한 시간 정도 둘러본 뒤, 게티 센터로 향하였다. 게티 센터는 고급스러운 수집품으로 가득한 게티 미술관 J. P. Getty Museum을 비롯해 게티 연구소, 교육 센터, 야외 정원 등을 갖춘 종합예술센터이다. 로스앤젤레스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브렌트우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버스에서 내린 후 게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노레일을 타고 언덕을 올라가 게티 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 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지만 이렇게 큰 게티 센터를 꼼꼼히 둘러보기엔 시간이 부족하였다.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란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목적지인 할리우드로 향하였다. 저녁 6시 쯤 할리우드에 도착하였는데 많은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먼저 차이니즈 극장으로 다 같이 향하였다. 차이니즈 극장은 영화계 최고 스타들의 사인이 모여 있는 광장으로 유명하다. 그 곳에 우리나라 스타인 이병헌의 사인과 손도장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세계적인 장소에 우리나라 사람의 사인이 있다는 게 뿌듯했다. 다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코닥극장으로 향하였다. 시상식 때 레드카펫이 깔리는 곳을 지나가는 곳 옆 기둥에는 각 년도 올해의 영화 제목이 적혀있었다. 이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자유 시간을 잠시 가진 뒤 저녁식사를 하러 코리아타운으로 향하였다. LA의 코리아타운은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코리아타운으로 대한민국 이민사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K-Town으로 불린다. 코리아타운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한글 간판들이 가득해 한국에 온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파리바게트, 탐앤탐스, CGV 등 한국 체인 브랜드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저녁 식사는 한국식 고기 집에서 하였는데 짜고 느끼한 서양식 음식에 질려가는 우리에게 정말 반가운 김치와 삼겹살, 된장찌개였다. 모두 아주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이틀 동안 머물 JJ Grand Hotel로 향해 체크 인을 하였다. 코리아타운에 있는 호텔답게 프론트에도 한국인이 있었으며, 호텔 곳곳에서 한글을 볼 수 있어 마냥 신기하였다.

1월 11일 월요일, 미국 연수의 마지막 자유일정이자 LA에서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까 고민한 우리는 LA의 유명한 쇼핑몰인 The Grove와 Farmer's market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갈 수도 있었지만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이공원을 가게 되면 기다리는 데에 시간을 많이 쓸게 뻔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리는 쇼핑을 하고 여유를 즐기기로 결정하였다. 우버 택시 어플을 깔아 택시를 부른 뒤 첫 탑승 15달러 할인을 받아 아주 저렴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Farmer's market은 미드 윌셔와 가까운 라 브레아 지역에 위치한 마켓으로 싱싱한 청과물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 기념품점을 갖추고 있어 소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The Grove는 Farmer's market 바로 옆에 위치하며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중심으로 각종 브랜드 숍들이 모여 있는 쇼핑가이자 대형 서점과 영화관,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먼저 여러 브랜드 숍들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한 뒤 미국의 스타벅스를 가보고 싶어 스타벅스를 가서 주문을 하였다. 미국의 아메리카노는 매우 진하여 충격을 받고 우리는 물과 섞어서 먹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한 뒤 그로브와 파머스 마켓을 마저 돌아보고 파머스 마켓 안 쪽의 푸드코트에서 햄버거와 핫도그를 사먹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구경을 한 뒤 다시 우버택시를 불러 코리아타운의 큰 마켓인 갤러리아 마켓으로 이동하였다. 신기하게도 부른 우버 택시의 기사님이 한국인이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며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었다. 갤러리아 마켓에 도착하여 우리는 먹고 싶었던 컵라면을 사고 20분 정도 걸어서 호텔로 이동하였다. 코리아타운은 저녁 7시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어 약간 무섭기도 하였다. 가이드님 말로는 위험하다고 9시 이후로는 절대 걸어서 다니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더 무서웠던 거 같다. 호텔 앞의 명동교차에서 저녁을 먹은 후 호텔로 들어와 조원끼리 방에 모여 못 다한 이야기도 하고 컵라면도 먹으며 마지막 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3. 라스베가스 / 그랜드캐년 📍 1.6(수) / 1.9(토)

연수 내용 : 조식 후 오전 8시 경에 묵었던 Wyndham Visalia호텔에서 Check-out을 하고 버스를 타고 출발하였다. 광활한 모하비 사막을 통과하여 5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현지 시각 오후 13시 30분에 네바다 주에 위치한 라스베가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시간이 점심때가 가까워서 근처에 있는 한식당에서 된장찌개, 갈치구이, 김치 등 한국적인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다. 점심식사 후 CES입장권을 나눠받은 후 오후 3시쯤이 되어서 Golden Nugget호텔에 Check-in을 하였다. 방에 짐을 푼 후에는 자유일정이었기 때문에 박람회장을 가기에는 주변 지리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North Outlet에서 각자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6시쯤이 되어 근처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샐러드로 저녁식사를 해결하였다. 저녁 후 호텔에 돌아와 입구 주변에 있는 프레몬트 거리 돌아다니면서 천장에 달린 전구쇼(LG에서 만듦)도 감상할 수 있었고, 공연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코스프레한 사람들 등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또한 카지노의 도시인 만큼 각 호텔마다 커다란 크기의 카지노가 호텔 1층에 마련되어 있다.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으로 하는 기계를 해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맞진 않았다. 이틀간 CES 박람회를 다 돌아본 후 9일 아침이 되어 이른 조식 후 오전 7시 50분에 투어 버스를 타고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그랜드 캐니언을 향해 출발하였다. 4시간 30분 가량 시간이 걸려서 그랜드 캐니언 입구에 도착하여 근처에 위치한 멕시코 전통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점심식사 후 국립공원에 입장하여 단체사진을 촬영한 뒤 각기 팀별로 Mather Point에서 개인 사진 촬영 및 경치 감상을 할 수 있었다. 웅장한 그랜드 캐니언의 경치를 감상하며 세상에 이토록 넓은 지역에 걸친 암벽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경치 구경을 끝내고 투어 버스를 타고 3시간 가량을 달려 네바다주의 라플린에 위치한 하라스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저녁은 호텔에서 뷔페식으로 먹은 후 호텔 앞에 흐르는 콜로라도 강가를 거닐며 산책을 하고 1층에 위치한 카지노를 둘러보다 방으로 돌아와 휴식시간을 가졌다.



4. CES1 📌 1.7(목)

전날 계획한대로 우리 조는 Tech East, 그 중에서도 LVCC의 North hall과 Central hall을 먼저 관람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첫 목적지인 LVCC에 가기 위해 호텔 앞에서 셔틀버스에 탑승했다. North hall과 Central hall에는 삼성, 기아, LG 등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Qualcomm, Intel, Sony, Toyota 등 해외의 유명한 기업들이 전시 부스를 열어 두었다.



-VR머신



-QuickCharge 3.0

가장 먼저 Qualcomm 부스를 가 보았는데, SNAPDRAGON 820 Processor가 가장 크게 소개되었다. 이 프로세서가 탑재된 VR머신을 체험해 보았는데, 비교 대상으로 여길 만한게 없었기에 확연한 성능의 차이는 느끼지 못했지만, 차세대 전자기기로 각광받고 있는 VR 장비에도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바라볼 때 태양광의 조도를 감지하여 더 선명하고 왜곡되지 않은 색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 꽤나 흥미로웠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QuickCharge 3.0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장치의 현재 배터리를 파악해 최적의 전력으로 빠르게 충전시키는 기술이라고 한다. 칩의 저전력화와 함께 고속 충전기술이 점점 발전한다면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SAMSUNG



-Display

Qualcomm의 부스를 모두 구경한 후에, 이번 CES2016에서 가장 크게 부스를 연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부스를 가 보았다. 삼성에서는 IoT 기술을 적용한 가전제품과, 웨어러블 기기인 Gear S2, Gear VR, 그리고 마지막으로 Quantum dot Display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TV를 선보였다. 생활가전 부분에서는 드럼 세탁기의 출입문 윗부분에 또 하나의 문을 만들어서 양말이나

간단한 세탁물을 세탁하는 중간에 아무 때나 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 기억에 남고 또한 냉장고의 넓은 벽면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Smart기기에서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부분이 Display interface라고 생각하는데,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oT 기술이 적용된 가전제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홈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을 통한 기기의 제어, 정보검색 등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더 기대된다. 웨어러블 기기들의 용도나 성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새롭지는 않았지만 VR에 접목시킨 Gear VR과 같은 기기를 실제로 보았던 것이 인상적이었고, 또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것과 동시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예전과 비교해 큰 발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부스 입구에 선보인 Quantum dot Display TV는 나노 스케일의 양자입자로부터 나오는 색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로, 가장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한다. 여러 회사에서 선보이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경쟁이 얼마나 더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장면을 표현할 수 있을까 기대되었다.



-안면 인식



-드론

다음은 Intel사의 부스를 가보았다. Intel 사의 부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사람의 얼굴을 카메라로 스캔하여 사람모양의 조각상 얼굴부분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드론도 보았는데 그냥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닌 드론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하여 자동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기술을 볼수 있었다. 이 기술은 앞으로의 드론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LG 3D TV



-스마트 옷걸이 벽장

LG사의 부스에서는 역시 디스플레이를 중점적으로 전시되어있었다. 입구에서부터 아주 커다란 3DTV가 설치되어있어 관심을 크게 이끌었다. 또한 요즘 많이 나오는 곡면 모양의 TV를 한 단계 발전시켜 물결모양의 곡면 TV또한 있었다. 이 기술을 통해 앞으로는 더 이상 TV가 평평한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고정 관념이 깨질 것이고 곧 고객이 원하는 모양의 TV를 사용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스마트 옷걸이 벽장도 보았는데 옷을 벽장 안에 걸어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옷을 흔들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벽장이 인상 깊었다.



-HYUNDAI



-AEB

다음은 현대 모비스 사의 부스를 가보았다. 현대 모비스 사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IT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EB라는 기술이었는데 이 기술을 자동적으로 위급한 사항에서 브레이크 기능이 작동하여 자동차의 구동을 멈추는 기술이었다. 이 외에도 여러 IOT기술들을 소개 하였는데 머지않아 스마트 자동차가 곧 보편화 될 것 같았고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5. CES2 ☞ 1.8(금)

둘째 날에는 WEST GATE쪽을 관람하였다. WEST GATE쪽에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각 기업의 기술이나 상품들을 전시하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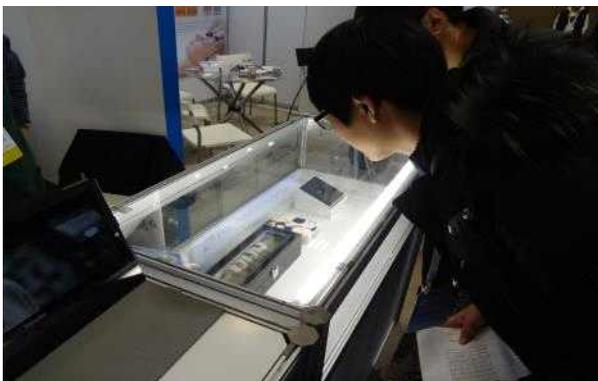


-RAONTECH



-3iWare

제일 먼저 간 곳은 RAONTECH사의 부스를 가보았다. RAONTECH사는 IOT기술이 접목된 안경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안경을 쓰고 보았을 때 마치 아이언맨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시야와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이 겹쳐 보였다. 다음은 3iWare사의 부스를 가보았다. 여기에서는 휴대폰의 이나 한 디스플레이 기기의 영상을 다른 기기로 동시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제품을 소개 하고 있었다. 이 제품을 보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을 할 때 앞으로는 개인의 휴대폰에 내용을 실시간에 보이게 하여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Fit.Life



-NanoREX

다음은 Fit.Life사의 부스를 가보았다. 여기에서는 wearable 기기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 기기들은 몸이나 손목 또는 벨트에 부착하여 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다른 제품과 정확도를 비교하였을 때 85.98%라는 월등한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은 NanoREX사의 부스를 가보았다. 여기사는 Dual Sided Screen Display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다. 이기술은 프레젠테이션 기기를 통해 영상을 디스플레이에 쏘면 이 디스플레이의 앞면과 뒷면 모두 영상의 모두 나오는 기술이었다. 기존에 앞면만 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 양면으로 나오는 점은 신선하였지만 아직 뒷면에서 좌우 반전되어 나온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다.



-ACEN



-DASAN

다음은 ACEN사의 부스를 방문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휴대용 음주 측정기 제품을 소개 하고 있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 폰과 연결되어 작동하며 기존의 음주 측정기처럼 부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다음은 DASAN사의 부스를 방문하였는데 여기에서는 IO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보일러 제품이 소개되고 있었다. 스마트 폰의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집의 보일러의 온도 조절과 on/off 기능을 할 수 있었다.



-PRINICS



-BEFS

다음은 PRINICS사의 부스를 방문 하였는데 여기서는 휴대폰의 사진을 무선으로 간단하게 인쇄할 수 있는 포켓 프린터 제품을 소개 하고 있었다. 아무 연결없이 바로 무선으로 간편하게 휴대폰 사진을 인쇄할 수 있는 점은 놀라웠으나 10장을 인쇄하고 리필을 해야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다. 다음은 BEFS사의 부스를 방문하였다. 여기에서는 ID-POP이라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다. 외형은 USB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기의 기능은 data를 저장하는 기존 USB기능뿐만 아니라 해킹할 수 없는 보안기능을 갖췄다. 메인 기능은 여러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입력하여 로그인 하는 기능이었는데 자동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